

우리회 33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근속직원 공로패 수여 등 간소하게



우리회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5시 한국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박상원 상근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3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현 임직원과 선배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가 세계 초일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애사심과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지금보다 곱절 이상 필요할 것입니다. 한술

밥 먹는 식구로서 마음을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40주년, 50주년에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라며 힘찬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한 유태수 과장 등 5명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장기근속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직위	소속	근속년수
유태수	과장	사업화지원팀	15년
윤종철	과장	특허기술평가팀	
이성옥	계장	사업화지원팀	
김현태	계장	특허기술평가팀	
김동환	과장대리	발명진흥팀	10년

사진설명



1. 우리회 박상원 상근부회장과 장기근속한 직원 및 각 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4 : 박상원 상근부회장이 우리회 창립 33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 3 : 우리회 박상원 상근부회장이 15년 장기근속한 이성옥 계장(사업화지원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 5 : 우리회 전 직원이 박상원 상근부회장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대학 R&D 혁신을 위한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이공계 교수 대상으로 특허청 · 인하대 공동 주최



하면서도 대학의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에 불과했으며, 또한 기술이전 건수나 기술료 수입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04년 기준으로 10.1%로써 미국 28%, 영국 29%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R&D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도 국내 대학이 0.14%로써 미국(2.95%)의 1/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특허청과 우리회에서는 대학 R&D의 주체이자 핵심인 이공계 대학교수에게 특허 전략 및 특허기술 이전 전략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대학에서부터 특허를 배울 수 있도록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전국 25개 대학 및 대학원에 특허강좌를 개설하는 등 전국대학에 특허정보활

특허청과 인하대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인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대학 R&D 혁신을 위한 특허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대학특허기술 마케팅 전략, 대학 직무발명제도 및 활용전략, 연구실 단위의 특허관리 전략 등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의 44.6%만이 연구개발에 특허정보를 활용할 만큼 특허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 R&D 성과가 저조했고 특히, 대학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2005년 기준으로 대학은 전체 박사급 연구 인력의 71.3%를 보유하고, 국가 R&D 투자의 9.9%를 사용



용교육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 사업을 우리회에서 주관하고 있어 대학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등에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올해 총 8회의 특허정보 세미나를 추진하여 대학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가 교수들에게 특허청 및 우리회에서 발행한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핸드북” 과 “국가 R&D 특허 전략 매뉴얼” 등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 전략을 제시한 책자도 함께 제공

하여, 이공계 대학 교수들에게 특허 및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할 계기가 되었다.



사진설명

1. 우리회와 7개 대학교가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대, 전북대, 이화여대, 서울대, 서울여대, 금오공대, 포항공대)
- 2: 세미나 장면 (전국 이공계 대학 교수 80여명 참가)

